



WHO “한국인 평균수명 남 73·여 80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6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5년 세계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3세, 여성은 80세였다. 2003년의 평균수명 75.5세보다 0.5세가 증가한 수치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66세(남자 65세, 여자 68세)로 남한보다 10년 가량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평균 수명 82세로 1위를 차지해 세계 최장수국 지위를 재확인했다. 여성 평균 수명은 80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이었다.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스와질랜드의 35세였다.

한국일보 2005. 4. 6

위암 조기발견율 50%까지 높아져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의 경우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팀이 1995년부터 이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2,50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16%만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 2004년에는 5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기위암 진단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96년 20.3%, 1999년 22.7%, 2003년 28%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49.6%로 급격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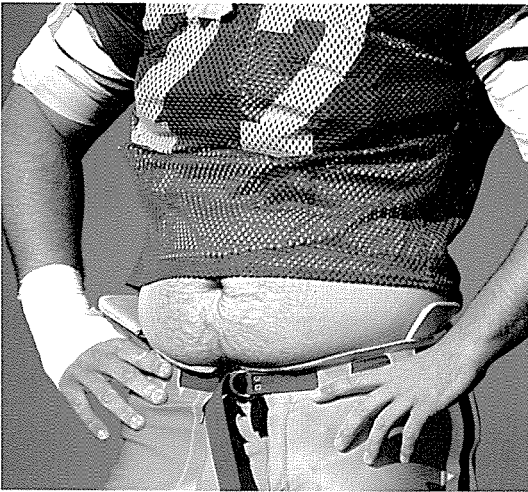
조주영 교수는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확대내시경 등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조기 위암 진단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면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비용과 시간,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완치율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내시경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행성 위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0% 내외지만 조기위암 환자는 95%에 이른다. 치료법도 진행성 위암은 배를 여는 개복수술이 필요하지만 조기위암은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해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으며 4~5일만 입원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서울경제 2005. 4. 7

Information

체중 늘수록 만성두통 위험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만성두통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잉글랜드 두통센터 연구실장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마르첼로 비갈 박사는 지난 해에 심한 두통을 최소한 1번 이상 겪은 3만850명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의 4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간의 평균 두통 횟수를 비교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비갈 박사는 14일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신경학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체질량지수(BMI)가 25-29인 과체중에서부터 만성두통 위험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해 BMI가 30이상인 비만에 이르면 2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갈 박사는 두통은 편두통이든 아니든 혈관 압박과 연관이 있으며 혈관 수축은 종종 염증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비만 자체가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5. 4. 15

나이·성별 고려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보건복지부는 15일 연령과 성별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검진법에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실시와 함께 건강검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기령 노인의 경우 치매나 골다공증 등 필요한 검진이 누락돼 있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사업장별 특성이 무시되는 등의 하점이 적잖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복지부는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및 권고안을 마련한 뒤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잠정 검토한 권고안에는 7-13세 아동의 경우 결핵검사와 구강검사, 사고예방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40-65세 연령층에 대해선 위암과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이 검진 대상에 포함토록 돼 있다.

연합뉴스 2005. 4. 15